

손흥민과 이정후, 'K-김(GIM)'을 미국 시장에 외치다!

- 해수부, LAFC(손흥민 소속 구단),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이정후 소속 구단)와 공식 후원 관계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한국의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인 손흥민 선수의 소속 구단 'LAFC(미국 축구)', 이정후 선수의 소속 구단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미국 야구)'와 공식 후원 관계를 맺고 우리나라 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 체결은 한국 김의 해외 현지 시장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씨포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올해 한 시즌 동안 미국 프로 축구·야구 경기장 내외에서 전방위 홍보·마케팅을 실시한다.

* 수산식품(Seafood)과 운동경기(Sport)를 연계한 홍보·마케팅 사업(2026년 신규사업)

우리나라 김은 세계 시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일본식 표현인 '노리(のり, Nori)'나 해조류를 뜻하는 'Seaweed'로 더 많이 불리며 '김'이 한국산이라는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씨포츠 프로젝트를 통해 김 수출 1위 국가인('25년 2.5억 불) 대표 소비지 미국 시장에 우리식 표현인 '김(GIM)'을 널리 알리고, 세계 시장에서 고품질 한국 김의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LAFC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협약을 통해 경기장의 주 전광판에 손흥민 선수, 이정후 선수가 출연하는 영상·이미지와 함께 '김(GIM)' 로고를 송출하고, 경기장 안팎에서 김 시식 및 증정 행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LAFC의 주 경기장 매점에 우리 김 제품들이 입점하여 판매될 예정이며, '김(GIM)' 로고를 삽입한 LAFC 구단 응원 용품을 제작하는 등 우리나라 김의 인지부터 체험,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한국 김이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의 K-조미김 수출 확대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씨포츠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인 운동선수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국 김(GIM)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세계 시장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김 수출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나라가 김 수출 1위 국가의 입지를 공고히 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창현 (051-773-5480)
	수출가공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박지수 (051-773-5483)